

우리의 목소리를 드림

[성경본문] 에베소서 5:1-2,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헌신’(獻身)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선한 일들을 위해 드리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우리의 헌신의 모범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우리는 그를 본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시기 전에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전에 그를 믿는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그는 단지 말로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셨다. 우리는 그의 교훈을 행하며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이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

가에 희생케 하셨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부모가 누구이겠는가?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을 버리고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것은 참된 헌신이며 최고의 가치가 있는 헌신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바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헌신은 없다. 그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 헌신의 행위를 본받아야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의 헌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증거한 후 생활 교훈을 주기 시작하면서 첫째로 헌신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잘 아는 헌신에 관한 교훈의 구절은 로마서 12:1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救贖)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이었을 것이며 썩은 죽음이며 지옥 형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구속과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드러야 마땅하다.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의와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다. 이것은 일부의 신자들이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한 두 번 할 일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 외의 어떤 것이나 그 이하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도 가치가 있지도 않다.

찬양대원의 헌신

찬송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하고 힘써야 할 일이다. 에베소서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히브리서 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속이거나 더러운 말을 하는 악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선한 용도로 써야 한다.

찬양대는 특별히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특히 찬양대원으로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몇 가지 힘써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찬송의 곡을 잘 연습해야 한다. 물론, 찬송의 곡은 일반 사람이 부르기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세속적이지 않고 경건하고 단순한 곡이 좋다. 오늘날 록 음악 같은 것은 좋지 않다.

곡을 연습할 때 우리는 첫째, 발성을 잘 연습해야 한다. 즉 고운 소리를 내는 법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연습해야 한다.

둘째, 음정을 잘 연습해야 한다. 노래에는 음정이 다 있다. 음정을 잘 잡아야 노래를 잘 할 수 있고 찬송도 그러하다.

셋째, 특히 찬양대원들은 화음을 잘 연습해야 한다. 음악의 세계는 신비하다. 여러 개의 음정이 있지만, 어떤 음정들은 서로 조화가 안 되고, 어떤 음정들은 서로 조화가 잘 된다. 혼자 찬송을 부를 때는 음정만 잘 잡으면 되지만, 중창이나 합창을 할 때에는 화음을 잘 사용해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또 그 화음의 세기의 정도도 균등해야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 어느 파트가 너무 강하다든지, 너무 약하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더 잘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박자도 잘 연습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빠르다든지, 너무 느리다도 좋지 않고 또 모든 찬양대원들이 한 사람처럼 박자를 잘 맞출 때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크게 둘째로, 이와 같이 우리가 곡을 잘 연습했다 할지라도, 찬송으로서 아직 한가지 중요한 점이 남아 있다. 찬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은 가사의 전달이다. 그것은 발음의 문제이다.

고린도전서 14:15-17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

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찬양 연습에 있어서 한가지 남은 중요한 점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반복적 연습을 통해 모든 찬양대원들은 하나같이 발음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가사가 전달되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헌신의 모범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못박히게 내어주셨다. 그는 참된 헌신의 가장 귀한 모범이 되셨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교훈한다. 또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주일예배나 그 외의 예배들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힘과 돈과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과 허무한 것들을 위해 살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다.

찬양대원으로서의 헌신은 특히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아름다운 찬송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고운 소리를 내는 발성 연습을 부절히 힘쓰고 또한 우리가 속한 파트의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 많이 연습하고 또 다함께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박자도 잘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이런 곡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 전달의 연습이다. 이것은 발음 연습을 의미한다. 찬송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사가 잘 전달될 때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큰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될 것이다.